

# 東學亂과 民族主義

—對日抗爭을 中心으로—

鄭 鎮 午

## I

現代世界는 一部 民族國家를 解体하고 地域的 統合을 이룩하려는 試圖가 行해지고 있지만 그 것이 如意치 않는 가운데, 特히 極東地域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強力한 民族主義에 對한 要請이 切實한 것으로 보인다. 特히 1970年代에 들어와서 韓國의 立場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約 100年前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民族主義運動이었다고 할 東學亂을 그 思想과 實踐面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東學亂은 무엇보다도 그 思想과 實踐面에서 民族主義的인 性格이 鮮明하며 當時의 復雜한 國際環境과 關聯하여 現在의 狀況을 살펴 보면 많은 類似點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本論에서는 東學亂이 發生하게 된 時代的 背景을 살펴 보고 東學思想과 實踐面에 對해서 論해 보고자 한다.

## II

李氏朝鮮은 儒敎로 國敎를 삼고 燕華事大主義로 國是를 삼았기 때문에 여기에 基하지 아니한 名論卓說이나 兩班과 士林의 科學 및 技術이 아니면 모두다 拒否當하고 假借없이 默殺當하는 社會였다. 이러한 無理와 橫暴가 宗教 以外에도 政治·社會等 各方面에 걸쳐 固疾化됨으로써 社會를 硬直시켜 國家를 衰亡케 하는 原因이 되었다.

일찌기 19世紀로 접어들면서 政事는 外威勢道の 門閥政治로 이끌려 가게 되었고 王權은 戚族 勢力의 그늘에서 위축되어 가서 王政이란 名色만이 維持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戚族 以外的 兩班들은 그들 元來의 지체를 維持하기조차 어려워지고 兩班政治라는 것도 한낱 虛構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특히 1873年 外威閔氏의 勢力은 大院君의 專斷政治를 물리치고 또 하나의 새로운 外威 勢道 政治의 出現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政府의 要職은 閔氏一門에 의하여 차지되고 買官賣職의 廢

## 2 논문집

風이 가지지 않아 <벼슬로 나가는 것을 마치 돈벌이 가는 장사아치나 금캐러 가는 덕대와도 같은 것으로 여겼다.><sup>1)</sup>

이제 지난날 한때 強力했던 政治·社會 및 文化的 制度는 沈滯했으며 오로지 스스로 權勢를 維持하는데만 關心이 있었던 잔악하고 욕심많은 支配分子들에게 惡用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官職의 賣買가 極甚하게 된 結果, 官吏들은 中央이나 地方을 莫論하고 非違不正의 陰性收入으로 私利私腹만 채우게 되었기 때문에 國庫로 들어갈 正規 租稅收入은 1893년에 이르러서는 4分之1로 激減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때 主로 王室의 無制限한 浪費와 其他의 經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淸·日 兩國을 爲始한 外國機關 및 商社에서 政府가 借用한 外債는 1,657,000餘圓이나 되었다.<sup>2)</sup> 大院君 때 相當한 黑字마저 내었던 財政은 閔氏戚族의 世道政治下에서는 이렇듯 赤字를 내었으므로 그 負債는 오직 農民이 負擔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외교적으로는 1876년의 開港以來 各國과 不平等 修好條約으로 因해, 特히 淸·日의 세력의 對立은 점차 노골화해 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傳統的인 勢力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淸國과 새로 떨어오는 日本 勢力과의 알력은 國內政界에 그 余波를 밀어왔다. 따라서 開化派와 守舊派의 政治的 對立은 淸·日 두 나라의 政治勢力과 連結되어 이제 國內政治는 단순한 國內政治問題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1882년 壬午軍亂이 일어나고 1884년에는 甲申政變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政府는 實로 對內外的으로 束手無策이었다.

이것은 世界史的으로 볼 때 1840—1842년의 阿片戰爭에 의한 中國의 開國과 1854년의 日本의 開港으로 일단 끝이 난 近代資本主義의 世界市場 形成의 마지막 段階에 뒤이어 일어난 事變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韓國의 地理的 位置 때문에 間接적으로 들어온 西歐 資本主義의 아시아 진출의 영향, 主로 天主教의 영향 때문에 韓國政府가 지금까지의 專制的 支配를 보다 강화하고 있을지음, 美國 資本主義에 의해 開國된 이웃나라인 日本의 軍事的 封建的 資本主義에 의해 開國케 된 데 起因한 必然的인 결과였다.<sup>3)</sup>

한편 社會的으로는 1862年 三南一帶를 휩쓸었던 晉州民亂 때부터 朝鮮王朝는 破綻의 絕頂에 이르러 이미 末期的인 現象을 드러내고 있었다.

地方에서는 首領이 새로 부임해오면 갖은 方法으로 農民에게 노락질할 것을 잊지 않았으며 訟事에 있어서도 바치는 돈의 額數에 따라 그 訟事의 勝敗가 左右되었다.

田政도 紊亂할 대로 紊亂해져서 農民들에게 任意로 稅를 負課하여 徵索하였으며 無名雜稅만 해도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여기에 官屬들의 行패가 따르게 되어 極端的으로는 兩班의

1) 韓治外傳, 韓國現代史(第1卷)新丘文化社, 1973. p. 282.

2) 李宜根外, 韓國史, 最近世編, 震檀學會, 乙酉文化史, 1961. p. 948—952.

3) 幼方直吉, 東學亂에 對하여, 世界, 1960, 5月號, p. 215—6.

卒徒들까지도 兩班의 私牌 등 별별 것을 다 가지고 民間에게 마치 톱질이나 하듯이 장난질을 쳤다.<sup>4)</sup>

中央에서의 政局이 混亂했으므로 地方行政이 제대로 될 리도 없으려니와 國家財政의 압박은 도탄에 빠진 民生을 돌볼 겨를이 있을 리 없었다.

이리하여 1890년을 前後하여 全國 各處에서는 또다시 30년 前의 民亂을 방불케 하는 民亂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의 民亂은 이미 民族內部的 葛藤이 아닌 異民族에 對한 反抗으로서, 그것은 1876년의 他力에 의한 開港以後에 오는 當然之勢로서, 예를 들어 1892년의 濟州島의 民亂은 日本 漁民들의 犯境通漁를 禁해달라는 濟州島漁民의 抗辯이였다.<sup>5)</sup>

이제 對內외의 敵對勢力들에 對한 民亂의 性格이 뚜렷해진 것이며 特히 對日抗爭의 民族主義的 性格이 굳어져가게 되었는데 이 때의 日本人들의 對韓侵略相을 살펴 보기로 한다.

1893년에 對日貿易은 輸出이 全輸出額의 90% 이상, 輸入은 50% 이상이었다. 이 때의 日本商人들은 一獲千金을 노리는 無賴輩나 浪人出身들로서 農民의 生活이 困窮하다는 弱點을 노려서 미리 金錢을 빌려주었다가 秋收期에 그들 收穫의 一部 또는 全部를 引受하여가는 高利貸의 方法으로 가난한 農民으로부터 二重의 利得을 取하는 惡質의 商行爲를 하였다. 따라서 農村은 더욱 더 헐벗어가고 農民의 日本 商人에 대한 敵愾心도 점점 더 커갔던 것이다.<sup>6)</sup>

또한 江華條約에 따라 開港地에서의 日本人 居留地 設定 및 土地所有의 實例을 보면 거의 無償에 가까운 料金으로 賃借하였고 그것은 나중에는 그대로 所有權이 認定되고 말았으며 1887년에 仁川의 日本人 居留地로는 約 七千坪이 提供되기도 하였다.<sup>7)</sup> 日人의 土地所有의 또 다른 경우는 前記한 農民을 相對로 한 高利貸金業者들의 抵當物 流失에 의한 土地獲得이었는데 이것은 가장 簡便하고 安價한 方法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方法은 그 意圖가 애당초부터 惡辣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無慈悲한 行爲로 인해 韓國의 農民들이 日人들을 憎惡하게 된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었다.

이 밖에 日人들은 누구나를 莫論하고 典當舖와 같은 高利貸金業을 통해서 韓國의 農民들의 土地를 收奪해갔던 것이다.<sup>8)</sup>

또한 1890년 1월에서 1892년 6월까지 1년 半 동안에 釜山 海關에서만 韓國 內外海에서 操業免許를 얻은 日本漁船의 數는 1,677척에 이르러 韓國沿岸의 部落에서는 <日本人이 오지 않아 魚物이 없다>는 소리까지도 나오게 되었으며 韓國漁夫는 그 漁具面에서 日本漁夫에 대해 이리

4) 韓活外外, 韓國現代史, op. cit. p. 283.

5) ibid p. 283.

6)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編, 1977, p. 335-6.

7) 趙漢濬外, 韓國文化史大系(Ⅱ) 政治經濟史, 高大 民研, 1965. p. 805-6,

8) ibid. p. 811-2.

#### 4 는 문 집

대한 새끼羊으로 비유되기도 하여 日人에 대한 漁民들의 怨聲 또한 큰 것이었다.<sup>9)</sup>

또한 日本商人들은 米豆를 大量으로 日本으로 輸送하기에 바빴으므로 兪作인 경우에는 이를 막지 않을 수 없어 地方監事들에 의해서 防穀令이 내려져 兩國間에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政府의 앞잡이나 다름없는 一種의 特權商人의 役割을 하는 客主 旅關이나 保負商이 外國商人에 和應하여 農民을 괴롭혔던 것이다. 이와 같이 開港 이래로 빚어진 상황하에서 物價는 이웃 나라의 그것과 비슷해져 갔고 農民의 收入은 더욱 줄어들어 增進되는 貿易이나 關稅收入은 農民들과는 無關하게 되어, 나라가 刷新된다는 宣傳自体에 대해서마저도 혐오감을 느꼈던 것이다.

### ■

이러한 時代를 背景으로 해서 1860년에 水雲 崔濟愚가 東學을 創道하게 되었다.

當時의 國內政治의 부패상과 儒敎의 몰락상에 대한 幻滅과 분노는 崔水雲의 勸學歌 등 여러 歌辭에 나타나고 있다.

<강산구경 다 던지고 인심풍속 살펴보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 있건마는 인심풍속 괴이하다 세상구경 못한 인생 출생이후 침이로다><sup>10)</sup>

<儒道·佛道 누친년에 運이 역시 다했던가><sup>11)</sup>

<아서라 이 세상은 요순지치라도 不足施요 공맹지덕이라도 不足言이라><sup>12)</sup>

여기에서 看取할 수 있듯이 水雲의 東學思想은 바로 이러한 末世의인 時代相에 대한 批判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時代的 苦悶을 안은 水雲은 그 解決策을 찾아 儒敎의 舊殼에서 뛰쳐나온 후 名山大刹의 佛家를 찾았으나 <威滅에 入하여 倫常을 絶하다><sup>13)</sup> 고 다시 실망하고 西來의 天主教를 研究했으나 <글에 淸白이 없고 말에 次第가 없으며 다만 自身을 위한 圖謀에 그치고 몸에 氣化하는 精神을 養하지 못하였다><sup>14)</sup> 고 역시 실망하였다.

그처럼 求道의 길을 걸던 水雲은 1860년에 天啓를 받아 東學을 창도하게 되었는데, 그는 東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9) 韓治勦外, 韓國現代史, op. cit. p. 290-1.

10) 白世明. 崔水雲의 人乃天思想, 勸學歌中에서, 世界, op. cit. p. 201.

11) 李宜根外, 韓國史, op. cit. p. 129.

12) 李敦化 編述, 天道敎創建史, p. 3.

13) 李宜根外, 韓國史. op. cit. p. 121.

14) 李敦化, op. cit. p. 3-4.

天道는 儒·佛·仙이 아니로되 儒·佛·仙은 天道의 한 部分이니라. 儒의 倫理와 佛의 覺性과 仙의 義氣는 人間性的 自然의 品賦이며 天道의 固有한 部分이니 吾道는 無極大源을 잡은 者라 後世 道를 用하는 者-이를 誤解하지 말도록 指導하라><sup>15)</sup>

이것은 東學이 儒·佛·仙의 合一만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며 그의 獨創的인 宗教임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東學이 民族的인 宗教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있다.

내- 東方에서 나서 다시 東方에서 받았으니 道는 비록 天道이나 學인 즉 東學이라!<sup>16)</sup>

그리고 이것은 新羅時代의 風流道에 緣由하는 것임을 그의 28代 先祖인 崔致遠의 有名한 駕 耶礪序文과 比較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가로되 風流라 設敎의 根源이 仙史에 照詳히 갖추었으니 實로 三敎를 包含하고 群生을 接化한 것이다.

入하면 집안에 孝하고 出하면 나라에 忠하였으니 이는 곧 魯可寇(孔子)의 旨요,  
無爲한 일에 處하여 不言之 敎를 行하였으니 이는 곧 周柱史(老子)의 宗이요,  
諸惡을 짓지 않고 諸善을 奉行하였으니 이는 곧 竺乾太子(釋迦)의 化라.<sup>17)</sup>

따라서 兩者間의 基本理念이 相似相通함은 명백하다.

한편 前述한 바와 같이 그가 東學과 天主教를 분명히 區分했지만 그가 接靈·降話등 天啓境界의 광경을 체험했다고 自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基督教의 氣味를 띠고 있음을 부인할 길 없고 그의 自述에 <斯人道稱西道學稱天主教則聖敎此非天時而受命者耶舉此不已故吾亦悚然只有恨生晚之際>라 (이 人道라는 것은 西道를 칭함이요 學이라는 것은 天主教를 일컬으는 것이니 곧 聖敎는 이것이 天時가 아니고 命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다. 이는 고로 나에 있어서 한스 러운 생이 끝나는 때이다.) 한 것을 보면 天主教의 자극을 받은 것은 엄폐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sup>18)</sup>

그러나 비록 天主教의 자극은 받았을지라도 그 淵源은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우리 民族 固有의 巫俗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天主란 말은 儒·佛·仙家에서 사용하던 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나라 말의 하느님에 해

15) 李宜根, 花郎道研究. p. 140.

16) 李宜根, 崔濟愚의 民族宗教, 世界, op. cit. p. 221.

17)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의 眞興王 三十七年 參照.

## 6 는 문 집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韓國人으로서의 水雲이 韓民族의 信仰生理로서의 하느님의 觀念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며 天主敎의 天主란 말에 자극을 느끼면서 潛在意識적으로 共鳴도 했을 것임은 짐작키에 어렵지 않다고 하겠다.

게다가 水雲의 天啓光景은 天主敎적이 아님은 天主敎에서는 神과 人이 二元的으로 현격해서 神이 身外에 있기 때문에 그 精神이 交通은 되는지 몰라도 東學에 있어서처럼 神이 身內에 있어서 神의 生命이 곧 내 生命인 <氣化>의 妙理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東方思想에서는 天人一氣를 주장하고 있으며 靈驗있는 呪文을 의음으로써 自己所信대로의 靈感을 招來할 수 있는 것으로 認識하고 있으며 특히 이 呪文의 存在야말로 天主敎와 分明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分岐點이라고 水雲은 確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降靈의 由來는 <이것은 멀리 찾을 것도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巫俗에서 由來한 것이다. 무릇 巫俗은 사마니즘系의 信仰·流俗으로서 新羅의 風流道도 그 中心思想이 이것이고 또 이 風流道의 淵源인 檀君의 神道說敎도 다름 아닌 이것이다. 그러므로 新羅始祖 赫居世가 神德이 있었다는 것도 이 信仰의 權化되란 말이니 次次雄 慈光은 바로 方言巫也라고 譯解한 것을 보면 이 야말로 思過斗인 것이다.><sup>18)</sup>

따라서 水雲이 體驗한 啓示光景은 일종의 降靈 즉 <내림이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바로 이 啓示의 由來는 儒·佛·仙은 물론이려니와 天主敎에서도 아예 아닌 巫俗의 內림에서 본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檀代의 神道說敎는 邦史의 一貫한 敎俗으로서 高句麗, 百濟, 新羅가 다 한가지 이것이 신앙의 標準이었는데, 그간 外來文化의 形態가 社會의 主流를 짓게 되어 風流道가 淘汰를 면치 못하고 似以非한 行態로 存續되었다가 이제 千年만에 다시 復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金凡父先生은 다음과 같이 그 歷史的 意義를 指摘하고 있다.

그런데 歷史도 往往 奇蹟의 躍動이 있는 모양인지라, 昏睡에 醉夢으로 支離한 千年의 寂寞을 깨뜨리고 하늘에서 외우는 소리는 웬 셈인지 馬龍洞 崔濟愚를 놀래 깨운 것이다. 이것이 果然<歷史的大降靈>이며 동시에 神道盛時 精神의 <奇蹟의復活>이라 할 것이다. 國風의 再生이라 할 것이다. 史憲의 驚異라 할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歷史的 大事件이다.」<sup>20)</sup>

따라서 東學에 있어서의 神觀은 天人一氣, 神我一體이며 基督敎 등의 外在神觀과는 相異하며 다만 人의 修行을 通해서 天人妙合의 境地에 到達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境地에 到達하는 것은 天人이 一氣이므로 언제나 사람이 自覺해서 眞實로 誠·敬·信으로서 侍天主를 할 때는 內

18) 金凡父, 崔濟愚論, 世界, op. cit. p. 229.

19) ibid. p. 231.

20) ibid. p. 232.

로 神靈과 外로 氣化의 天人이 妙合을 할 것이니 이러한 天人妙合境에선 言默動靜이 한가지 天의 所爲에 合할 것이라고 했다.<sup>21)</sup>

한편 水雲의 道德觀은 대체로 儒敎의 淵源을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儒敎에 따라서 仁義禮智의 四主德에는 異議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修得方法에 있어서는 守心正氣를 따르지 않고 그 자신의 體驗인 내림(降靈)의 妙理를 把握하는 것이 修鍊의 妙法이요 成道의 捷徑이라고 確認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守心正氣의 妙力은 실로 呪文降靈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國風에서 由來한 것이다.

한편 水雲의 政治觀은 그의 神觀에서 보듯이 天人一氣로 나타나듯이 그것은 當然한 論理로 人乃天의 平等思想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그가 道德觀으로서 儒敎를 따른다고 했으나 이러한 平等思想은 분명히 儒敎의인 것이 아니며 그것은 以後 그 자신을 비롯한 東學思想의 實踐에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 東學의 歌辭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의 平等思想은 當時로는 革命的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安心歌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현숙한— 내집부녀 이글보고 안심하소  
大抵生靈 草木群生 死生在天 아니런가(中略)  
우리라— 무슨팔자 苦盡甘來 없을소냐  
興盡悲來 무섭더라 한탄말고 지내보세(中略)  
어과세상 사람들아 仙風遺骨 내아닌가  
좋을시구 좋을시구 이내신명 좋을시구  
萬乘天子 秦始皇도 鄴山에— 누워있고  
漢武帝—承露盤도 웃음바탕 되었던가(中略)  
所謂西學 하는사람 암만봐도 명인없네  
서학이라 이롭하고 내몸발친 하였던가(中略)  
요약한— 저인물이 놀로대해 저말하노  
한울님이 내몸에서 아국운수 보전하여  
그말저말 듣지말고 거룩한— 내집부녀  
근심말고 안심하소 이 가사—외어내서  
춘삼월— 호시절에 태평가—불러보세

이러한 男女平等思想이 뚜렷한가 하면, 다시 同安心歌에는 輔國安民, 特히 反日民族感情이

21) ibid, p. 236.

분명히 보인다.

기험하다 기험하다 我口運數 기험하다  
 개같은— 倭敵놈가 너희신명 돌아보라  
 너희역시 下陸해서 무슨은덕 있었딘고(中略)

한편 劔訣歌에는 훗날 東學亂때 東學軍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水火를 돌아보지 않고 死地에 뛰어 들었다는 事實을 뒷받침할만큼 降靈呪文의 效能이 잘 나타나 있다.

時乎時乎 이내時乎 不再來之 時乎로다  
 萬世一之 丈夫로서 五萬年之 時乎로다  
 龍泉劔— 드는칼을 아니쓰고 무엇하리  
 舞袖長衫 멀쳐입고 이칼저칼 년깃들어  
 浩浩茫茫 넓은天地 一身으로 비껴서서  
 칼노래— 한曲調를 時乎時乎 불러내니  
 龍泉劔— 날랜칼은 日月을— 戲弄하고  
 게으른— 舞袖長衫 宇宙에 덮여있다  
 萬古名將 어디있나 丈夫當前 無壯士라  
 좋을시구 좋을시구 이내身命 좋을시구<sup>22)</sup>

한편 韓國의 政治思想史의 立場에서 東學의 政治思想은 어떻게 解釋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이 當時의 韓國의 政治思想界의 支配의 潮流는 丁茶山 等の 實學思想이었으며 이는 中國의 古典과 孔孟思想을 觀念이 아니라 實質을 科學的으로 分析考證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天主教의 影響을 받았으며 그러한 基礎에서 韓國의 政治를 改革하려고 했으므로 이러한 過程에서 韓國思想의 固有한 特質과 樣相이 우리나게 되었다.

특히 韓國固有의 蘇塗思想은 下層農民들 사이에 連綿히 흘러왔는데 이에 農民들이 支配層의 逼迫을 참다 못해 일어난 革命의 精神이 實學派主張을 變質시킨 것처럼 보이는 蘇塗의 性格을 띄우게 되었다. 따라서 東學思想이 發源하고 東學亂이 일어나게 된 歷史的 背景은 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民族自主의인 性格의 蘇塗型의 革命이 必然的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天主教를 排斥하였음에도 그러한 精神의 體質과 信仰對象의 비슷한 樣態가 되었었다. 그리고 儒·佛·道 어느 것도 그것대로는 滿足이 가셔지지 않은 綜合으로서의 <人乃天>思想이 결국 巫祝的 方

22) 李宜根外, 韓國史, op. cit. p. 130-132. 金凡父, 世界, op. cit. p. 238.



法人 呪術로 登場하여 檀君神話의 <弘益人間>과 接線하게 된 것도 理由없는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天主의 權威主義가 人間과 함께 符合된 期約과 念願이고 그 神의 正義感인 것이다. 이와 같은 宗教 心情은 地上天國의 天主敎의 모습이기도 하려니와…(中略)…어떻든 東學敎의 意圖에는 實學派 思想家들이 念願한 目標에 通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 科學的 客觀性과 合理主義 方法과는 全然 性格과 態度를 달리하는 形質의 變更으로서의 急進的 神祕主義였음이 明白하다.<sup>23)</sup>

한마디로 東學은 西洋의 歷史性과 宗教의 背景에 바탕을 두지 않고 韓國의인 <內外在의 危脅에 놀리어 局塞으로 치달려져 왔던 限界點에서 暴發한 民生苦惱의 消息—自古로 修正되지 못한체로 남아돌았던 原始型的 凝結과 그 發散이었다><sup>24)</sup>고 하겠다.

따라서 東學思想이 그 實踐에 있어서 民族과 國土를 지키는 農民革命 乃至 民族運動의 先鋒으로 나타난 것은 너무나도 當然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宗教運動으로부터 始作하여 及已也는 革命으로까지 展開된 東學思想의 源動力은 바로 水雲의 殉敎에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 政府는 東學이 西學이며 反亂徒黨으로 規定지어 彈壓을 가했다. 1864년에 議政府가 水雲 等の 處斷을 建議한 啓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東學이라 일컫는 것은 西洋之術을 全襲한 것으로 特히 名目만을 移寫하여 愚衆을 眩亂케 하는 것이다. 둘째 早速히 討治하지 않으면 漸次로 黃巾賊이나 白蓮徒같은 大患이 될지도 알 수 없다.<sup>25)</sup>

따라서 政府가 이처럼 東學을 西學으로 몬 것은 실로 言語道斷이라 하겠으나 그가 獨創한 萬民平等思想으로 後天開闢思想까지 주장하여 王朝의 崩壞와 아울러 政治社會의 大變革까지도 豫告·煽動하는 것이 政府側을 경악케 한 것 때문이었음은 의심의 余地가 없다고 하겠다. 그것은 東學에서 사용하는 天主와 上帝와 같은 用語들이 基督敎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使用되었다고 해서 水雲이 王보다도 더 높은 存在가 있음을 主張하고 있다고 非難한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實로 水雲의 죽음에는 예수나 Socrates의 그것과 너무나도 恰似한 것이 있다. 그는 이미 이러한 彈壓이 있을 것을 豫想하고 1863년 8월에 道統을 首弟子인 崔時亨(號는 海月)에게 傳受해주고 後日에 對備케 했으며 그가 서울에서 大邱로 押送當할 때 東學敎徒 數千名이 島嶼에서 待期하고 있어 官憲들을 전를케 했을 때도, 水雲 自身이 會衆에게 <天命>임을 일컬어 조용히 作別함으로써 事態를 收拾케 했다.

23) 金永斗外, 韓國文化史大系, op. cit. p.119.

24) ibid. p.121

25) 李宜根外, 韓國史, op. cit. p.134.

뿐만 아니라 左道亂正律에 의해 濫刑에 처하게 될 때 그의 主張을 中止하고 處身을 改轍만 하게 되면 참화를 면하고 活路가 있다는 것을 몇번이나 어디서 暗示가 있었고 曉諭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毅然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하고 大邱將台에서 致命遂志를 한 것은 오로지 그의 <大道>에 대한 使命感만이 日月함께 輝煌한 것으로 실로 聖者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sup>26)</sup>

따라서 그러나> 그런 特定の 原則보다도 그 運動에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가 죽은 後에도 長久하게 團結해 나가도록 한 것은 도리어 그 人間自體의 魅力的인 힘과 救世主的인 人格에 있었다. 大神師는 몸소 天道에 獻身했을 뿐만 아니라, 그 道로 하여금 魅力와 意義를 갖게 했다. 崔濟愚의 殉道때문에 그의 信徒들이 그에 대하여 生存時 가졌던 높은 尊敬心은 事實上 그를 神格化하는 境地로 讚美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7)</sup>이것은 다시 말하면 水雲이 民族의 얼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殉教의 길을 擇하였다고도 解釋할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東學이 한 西洋學者에게 東學이 天主教에서 그 組織과 儀式上的 어떤 要素를 취했으며 그의 著書나 그에 관한 書籍들에는 異常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一生과 가르침에 관한 聖書內容과 類似한 樣式과 語調를 담고 있는 것으로 비취인 것은 天主教가 東學에 끼친 영향을 考慮할 때 比較的 無理없이 敘述한 것이라 하겠다.<sup>28)</sup>

## IV

水雲은 그의 思想을 實踐하기 위해 그가 지은 和訣詩에서 일컬은대로 <坊坊曲曲을 行行盡하고 水水山山을 個個知라>할 정도로 民衆속으로 파고들어 布德天下하기에 心血과 誠力을 다하였다.<sup>29)</sup> 따라서 1863년에는 信徒數는 이미 三千을 넘고 있었다.

또한 水雲은 1862~1863년의 겨울에 그의 後繼者인 海月の 提案에 따라 接主制度라는 敎團組織을 갖추게 되어 敎勢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水雲이 他界한 후에 海月은 후에 그의 後繼者가 된 孫秉熙로 하여금 1884년에 地方組織을 強化하고 業務節次를 標準化하는 이른바 六任制度의 내용을 받아쓰게 하여 실천에 옮겼다.

그러는 가운데 1871년 3월 10일 敎祖 殉教口을 期해 東學敎徒인 李弼濟가 海月の 時期上早論을 거역하고 東學敎徒를 이끌고 敎祖神究運動이라는 民亂을 寧海府에서 일으켰다. 그러나 이 變亂으로 인해 100余名の 敎徒가 被殺을 당했으며 그 이후로 東學敎徒에 의한 變亂은 없었다.

그러나 1892년 忠淸監司 趙秉式이 다시금 東學敎徒에 대한 彈壓을 加하게 되자 吏胥나 軍校들이 東學敎徒의 團束을 핑계삼아 良民들을 侵襲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敎

26) 金凡父, 世界, op. cit. p. 240.

27) 李教化, 天道敎創建史, op. cit. p. 54.

28) Junkin, William M. Tong Hak, Korean Repository, Vol Ⅰ. 1895, p. 59-61.

29) 李教化, 天道敎創建史, op. cit. p. 40.

徒와 良民에 대한 侵虐을 막기 위해서는 教祖에 대한 伸冤運動을 통해 東學에 대한 政府의 公認을 얻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海月도 그 以上 自重하는 것을 그치고 1892년 12월에 參禮驛에서 그리고 1893년 2월에는 서울에서 官吏의 탐학과 教祖의 伸冤을 呼訴했으나 모두 失敗로 돌아갔다.

서울에서 王에게 낸 上訴文은 <殿下는 臣들의 天地父母요 우리 臣들은 殿下의 赤字율시다. 이 窮痛의 때에 臣들은 이 行動이 殿下에게 不恭한 줄을 알면서도 一致하여 殿下에게 訴할 수밖에 없는 바><sup>30)</sup>라고 王室에 대한 그들의 忠誠을 가장 恭遜하고 率直한 語調로 表示하고 있으며 參禮의 全羅道觀察司 李耕植에게 보낸 訴文에서는 水雲의 至冤을 제거토록 王에게 勸해줄 것과 地方官廳에 命하여 殘民을 죽음에서 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兩訴文 다 排外的인 文句는 없었다. 그러나 前者의 上訴文에 <……伯夷叔齊를 가리켜 耿愨者라 할 수 있을지언정 西敎라고 우리 先生을 疑心함은 萬不當한 것이니 우리들은 비록 萬番 죽음을 當할지라도 盟誓하거나 그 靑白이 가려질 때까지는 우리들의 現在 行動을 中止하지 않겠노라……<sup>31)</sup>한 것을 볼 때, 이러한 上訴運動이 失敗한 結果는 東學敎徒의 不滿을 解消시키기 위해서는 그 運動보다 더 強力한 方法을 使用해야 한다는 確信을 갖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893년 3月 17日 韓恩에서 海月은 이제 教祖의 伸冤과 地方官의 侵虐뿐만 아니라 斥倭僞의 旗幟를 들고 一大示威運動을 벌였다. 이것은 이미 東學歌辭의 到處에 나타난 補國安民思想의 實踐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미 이때는 1876年の 對日修好條約이 맺어져 門戶가 開放된지 17년이 지난 때인만큼 外勢의 侵入이 體驗이나 豫感에서 오는 感情의 問題로서가 아니라 바로 눈 앞에 벌어진 現實問題로 提起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 示威運動에 놀란 政府는 魚允中을 宣撫使로 보내 貪官汚吏를 徵戒할 것이라는 刺旨를 傳하여 敎徒들을 무마·解散시키는데 成功했다. 그러나 그 刺旨에는 東學敎徒들의 要求를 들어주겠다는 確實한 對答이 없었으므로 徐丙鶴等 一部 強更論者들은 朝廷을 공격하고 나라를 改革하여 水雲의 汚名을 씻도록 하자고 주장했으나 海月은 暴力手段의 使用을 原則적으로 反對하고 그로 因해 東學이 破滅을 自招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러한 鬭爭方案에 對한 見解의 對立은 海月の 穩健派와 全奉準을 中心으로 하는 強更派 다시 말하면 南北接으로 分裂되기에 이르렀다. 海月の 北接은 忠淸道 北部, 黃海道, 平安道, 慶尙道 및 江原道에 걸친 廣範한 地域의 東學敎徒들을 統率하게 되었고 南接은 全羅道와 忠淸道 南部를 統率하게 되었다.

全奉準은 至極히 가난한 農民선비였으나 儒學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으며 特記할 일은 在來의 軍事乍戔에 대해서도 知識을 갖춘 社會淸勞과 國運에 민감한 正義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1884년을 前後하여 東學에 入道했으며, 海月이 古阜地方의 接主로 任命했다.

30) *ibid.* p. 51.

31) *ibid.* p. 46-8.

그는 <東學은 守心하여 忠孝로써 本을 삼아 輔國安民하라는 일이다. 東學은 守心敬天하는 道인고로 내가 酷好하는 것이다><sup>32)</sup>고 入道理由를 밝히고 있음을 볼 때 輔國安民·民族救濟의 包負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全瑛準의 고을에 탐학으로 이름난 趙秉甲이 郡守로 부임해 온 것은 1892년으로 1893년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萬石湊를 修築한다 하여 舊湊 밑에 新湊를 쌓게 하였다. 그리고 秋收期에는 이를 빙자하여 합부로 水稅를 받아들이며 모두 7百餘石을 着服하였다. 그리고 그의 탐학은 이 程度가 아니라 그의 父親이 일찌기 泰仁郡守였음을 내세워 碑閣을 세운다고 強制로 거둔 돈만도 千餘兩이나 되었다. 이러한 惡政下에서 참을 수 없었던 農民들은 12월에 全瑛準이 써준 陳情書를 郡守에게 내었으나 郡守는 投獄으로 應酬했고 그 다음날의 農民들의 哀訴도 무참히 짓밟혔다. 그리하여 1894년 1월 10일에 全瑛準은 1,000餘名의 群衆을 지휘하여 內衛를 습격했으나 趙秉甲이 도망가서 잡지는 못하였다.

이에 政府에서는 長興府使 李容泰를 按察使로 내려보내었으나 李容泰는 民亂의 責任을 東學 敎徒와 農民에게 모두 뒤집어씌워 東學 敎徒들과 무고한 농민들을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妓樂을 즐기는 등 醜惡한 處事를 했다. 이에 全瑛準으로서의 行動함에 있어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義擧를 決心했다.

全瑛準은 3월에 東學 敎徒를 中心으로 한 群衆을 이끌고 東徒大將이란 號를 앞세우고 21字의 東學呪文을 외면서 義擧를 일으켰다. 그는 擧事의 大義를 다음과 같이 宣布했다.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財物을 損傷시키지 말 것.
2. 忠孝를 다하여 濟世安民할 것
3. 倭夷를 逐滅하여 聖道를 밝힐 것
4. 兵을 몰아 서울로 들어가 權貴를 盡滅할 것.<sup>33)</sup>

이것은 報恩集會때의 除暴救民 斥洋倭 唱義보다도 더욱 具體적으로 서울의 부패한 權貴를 盡滅하고 倭夷를 逐滅한다는 目標을 분명히 한 것이며 忠孝의 範圍內에서의 革命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안으로는 탐학한 官吏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醜惡한 強敵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兩班과 富豪의 앞에 苦痛받는 民衆들과 방백·수령 밑에 屈辱을 받는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者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時刻으로 일어서라…><sup>34)</sup>는 激文을 널리 宣布했다. 이는 이제 그의 義擧가 단순히 民亂의 性格을 넘어 農民과 그 立場이 같은 小吏들도 가

32) 韓治勳外, 韓國現代史. op. cit. p.301

33) ibid. p.302.

34) ibid. p.303.

담하라는 革命的 性格을 띄운 것이다. 이리하여 3월 29일에는 泰仁의 郡衛를 깃대와 槍을 휘두르며 습격, 武器를 탈취했고 4월 7일에는 黃土峴에서 官軍을 무찔러 氣勢를 올렸다. 이처럼 南接軍이 全羅道一帶를 휩쓸게 되자 北接의 海月은 4월 7일에 數千名의 敎徒들을 忠淸道 靑山縣 小蛇里에 모이게 하여 4월 9일에는 懷德을 습격하고 다시 鎭岑으로 진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官軍의 劣勢에도 불구하고 全珠準의 舉事當初부터 消極적이었던 海月은 武力抗學는 꺼려했음인지 4월 11일까지에는 이미 公州와 鎭岑사이의 東學軍은 저절로 解散되고 말았으나 公州·淸州以南의 여러 地方은 거의 無政府狀態나 다름없었다.

한편 政府는 이러한 東學軍을 討伐하기 위해 洪啓薰을 兩湖招討使로 任命하여 洪啓薰이 800名の 京軍을 이끌고 全州에 도착한 것은 4월 7일이었다. 이 때 東學軍은 4월 12일에 榮光에 到着했으며 招討使가 政府에 보낸 電報에 의하면 그 勢가 다음과 같이 浩大했다.

<그들 萬余名이 榮光郡에 屯聚하여 5리씩에 伏兵을 두고 30리에 2,500名씩 그 勢가 浩大하여 날로 더하여 몇 千名인지를 알 수 없다. 四方에서 따라 모여들며 各處에 오가는 書字連絡이 번개와도 같이 빠르다><sup>35)</sup>

이들은 茂長·井邑·榮光·長興·泰仁·玉果에 陣을 치고 매일 陣法을 조련하고 매일 밤에 經文을 誦讀했다. 이들이 4월 16일에 咸平을 占領했을 때는 騎馬軍도 100余名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南北接의 東學軍은 이때 忠淸·全羅 兩道의 거의 三分之一을 占領한 것이다. 東學軍이 이처럼 그 勢가 浩大한 가운데 洪啓薰은 全州에 入城했으나 京軍은 그 절반이 도망쳐버려 이제 470명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高宗은 4월 19日 不法 地方官의 징계를 宣布하고 실제로 民弊가 되는 것은 民論에 따라 是正할 것을 紓災하는 綸音을 내렸고 4월 21일에 洪啓薰은 이를 東學軍에 보내 招撫하려 했으나 東學軍은 이를 斷然코 거부하여 事態는 더욱 惡化되었다. 이 때 京軍은 東學軍의 뒤를 追擊하는 格이 되었고 東學軍은 京軍과의 對戰을 避하면서 드디어 4월 27일에는 防備가 허술한 全州城을 쉽사리 占領했다.

그리하여 28日과 다음달 5月 3日의 兩次に 걸쳐 激戰이 벌어졌으나 優勢한 장비를 갖춘 京軍에게 東學軍은 敗하고 말았다. 이에 京軍은 高宗의 綸音과 그들의 曉諭文으로 宣撫工作을 벌였으며 全珠準은 다음과 같은 原情書로 맞섰다.

우리들도 先王의 遺民이다. 不正한 犯上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舉動이 설사 놀랄만하다 해도 擧兵屠戮은 누가 먼저 했는가? 前 監寔의 良民殺戮의 罪를 도리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무엇인가? 國太公(大院君)을 받들거 監製執權에 하자는 것이 무엇이 不軌인가? 또한 綸音을 傳하자는 書를 알고서야 그들을 殺害할 理가 있었겠는가? 더구나 放砲하여 廢基殿을 損傷케 한 것

35) *ibid.*, p. 306.

이며 罪없는 兵衆을 殺害함은 옳은 일인가? 36)

그러나 繼續되는 政府의 宣撫工作은 效果를 見우었고 全瑬準은 이에 休戰할 것을 決心하게 되었다. 全瑬準이 休戰에 同意한 것은 優勢한 裝備를 지닌 京軍과 持久戰을 벌리는 것이 不利하다는 戰術的 理由도 있었으나 重要的 것은, 이미 이 東學亂때문에 淸·日 兩軍이 國內에 들어왔으므로 國家의 安危가 存亡에 處하게 된 狀況에서 官軍과 싸운다는 것은 東學亂의 大義에도 어긋난다는 純粹한 愛國心에서 緣由한 것임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理由로는 그 以上 國民의 被害를 막자는 것과 北接과의 不安한 關係를 들 수 있는데 北接은 全瑬準의 北進路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東學軍은 5月8日 入城 10日만에 全州城을 撤收했으며 全瑬準은 地方에 감독하여 事態의 추이를 觀望하게 되었다.

政府는 4月 30日 全州가 東學軍에게 占領當하게 되자 袁世凱에게 <우리 軍隊는 現在 少數로써 到處를 호위하고 있고 또 아직 戰鬪를 겪지 않았으므로 凶寇를 除去하기 어렵다. 돌이켜 볼 때 壬午年과 甲申年 두 차례의 우리 나라 內亂때 모두 中朝兵士(淸軍)에 의뢰하여 評定을 보았으니 이에 다시 援兵을 請한다>고 東學軍을 凶寇로 規定하고 스스로가 外軍을 불려들이는 愚擧를 犯하고야 말았다. 이것이 結局 亡國의 原因이 될 줄은 그들도 몰랐으며 主体性을 喪失한 政府의 處事가 그러한 結果를 招來한 것도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朝鮮에서 弱化되어가는 勢力을 다시 強化하게 되는 好機를 맞이한 淸은 5月5日에 淸軍의 先發隊를 牙山에 着陸시켰다. 그러나 이미 이 때는 東學軍과 政府軍사이에 休戰이 成立된 후인지라 이를 迂回한 政府는 淸軍의 撤兵을 要請했으나 이에 應할 淸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5月 22日에는 後續部隊가 다시 牙山에 到着하는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5月2日 淸으로부터 天津條約에 따라 淸軍의 朝鮮出兵에 對한 報告를 받은 日本은 朝鮮政府의 強力한 抗議에도 불구하고 5月 6日 日本軍艦을 仁川에 上陸시키기에 이르렀다. 日本은 이 때 朝鮮에서의 政治的 經濟的 地位를 強化하기 위해서도 日軍을 迅速히 派遣한 점도 있었으나 特히 伊藤博文內閣이 政治的으로 窮地에 빠져있어 이미 4月 29日에 國內의 政治的 不安을 對外問題로 돌리기 위해 朝鮮의 東學亂을 口實로 朝鮮에 派兵할 것을 決意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37)

이리하여 日本은 어떻게 해서든지 淸國과 開戰할 구실을 찾기 위해 朝鮮의 內政改革을 통해 東洋平和를 維持해야 한다는 理由로 6月 22日에는 事實上 王을 포로로 한채로 閔氏戚族勢力을 몰아내고 大院君을 꼭두각시로 하는 親日開化派를 中心으로 하는 새 內閣을 構成하여 이른바 甲午更張을 強制로 實施하게 되었다.

36) ibid. p. 315.

37) ibid. p. 360.

한편 日軍은 다음날 6月 23日 宣戰布告도 없이 豊島海戰에서 淸軍에게 莫大한 被害를 입히고 7月 1日에는 兩國은 正式로 宣戰布告하고 우리 나라 땅에서 戰爭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듬해 1895년 4월 14일 日本의 勝利 속에 馬關條約이 체결되고 그 第1條에 朝鮮을 完全한 自主獨立國家로 確認한다고 規定했으나 이는 日本이 淸의 朝鮮에 對한 宗主權을 否認케 하고 그 代身 日이 그 地位를 確保하려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全瑋準은 全州에서 撤收한 다음에 땅에 떨어진 官의 威信을 代理하여 全羅道 觀察使 金鶴鎭과 相議하여 事實上 東學教徒에게 治安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東學教徒 主管下의 執綱所의 設置에 合意하였다. 그리하여 全羅道 53州 고을마다 官廳안에 執綱所를 두었고 執綱 밑에 書記·省察·執事·童蒙 등을 두었으며 全州에는 모든 執綱所에 對해 總指揮를 하는 大都所를 두었다. 執綱所에서는 幣政을 改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2個條項의 要綱을 내걸었다.

1. 道人(東學人)과 政府와의 사이에 오래 끌어온 혐오의 感情을 씻어 버리고 모든 行政에 協力할 것.
2. 貪官汚吏는 그 罪目을 調査해내어 일일이 嚴懲할 것.
3. 橫暴한 富豪輩는 嚴懲할 것
4. 不良한 儒林과 兩班들은 懲習할 것.
5. 奴婢文書는 불태워버릴 것.
6. 七班賤人의 境遇는 改善하고 白丁머리에 쓰는 平壤笠은 벗겨버릴 것.
7. 青春寡婦의 改嫁를 許諾할 것.
8. 無名雜稅는 모두 거둬들이지 말 것
9. 官吏採用은 地閥을 打破하고 人材를 登用할 것.
10. 外賊과 姦詐하는 者는 嚴懲할 것.
11. 公私債는 勿論하고 既往의 것도 모두 無効로 돌릴 것.
12. 土地는 平均하여 나누어 耕作케 할 것.

要是 官民이 協力하여 難國에 處한 祖國을 바로 잡을 것과 日本의 侵略에 內通하는 者를 處罰하고 庶政을 刷新하고 經濟的 身分的 近代化를 指向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執綱所를 통한 革命運動은 一部 兩班들의 非難도 받았으나 一般大衆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아 東學의 勢力은 비단 全羅道 뿐만 아니라 三南地方을 비롯하여 北으로는 平安道와 咸鏡道까지 미쳐가는 형편이었다.

이러할 지음 淸日戰爭과 甲午更張의 消息을 듣게 된 全瑋準은 9월에 들어 이제는 直接的인 抗日武力봉기를 일으키기로 決心하게 되었다. 이 때 全瑋準과 大院君과 密通했다거나 日本이 全瑋準을 援助했다는 說이 있으나 正確한 資料로서 立證된 것은 하나도 없다.<sup>38)</sup>

38) Benjamin B. Weems, Reform, Rebellion and the Heavenly Way, 洪晶植 譯, 瑞文堂, 1976, p. 93. 한편 李基淵, op. cit. p. 348은 大院君과의 內通說을 따르고 있다.

한편 이러한 全璉準의 再起에 대해서 海月の 北接은 公式聲明을 통하여 南接은 東學敎理를 위반하여 東學의 正統派인 北接과 싸우려 하고 있고 全璉準과 忠淸道의 徐昌玉은 國家에 대한 反逆徒요 東學信仰에 대한 異端者라고까지 宣言하고 南接과 싸울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東學의 分裂은 吳知泳의 다음과 같은 北接에 대한 和解의 呼訴로써 統一을 보게 되었다.

「우리 道에 의하면 봉기는 옳지 못하다. 그러나 現下의 事態下에서는 全璉準이 그릇되었다 해도 그를 공격함은 옳지 못하다. 그런데 北接이 싸움을 始作하기 前에 이미 敗北, 朝庭과 日本人과 淸나라人까지도 南接에게 공격을 개시했다. 이 軍隊들이 南接을 지킬 수 있을 것은 分明하니 萬一 北接이 이런 軍隊들과 싸운다면 그 敗北를 오로지 促進시킬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 南接軍은 그들의 敵에 대하여 無力하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北接 때문에 敗北했다고 非難할 것이다. 萬一 우리들이 弱者에 對抗하여 强者와 結託한다면 어찌 北接人들이 世上을 쳐다볼 수가 있을 것인가?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묻지 말자. 이 道의 敎徒들은 마땅히 서로 生死間에 協力해야 한다」<sup>39)</sup>

이에 海月도 모든 信徒들에게 敎祖에 對한 不當한 處事를 거래하는 가장 適時이니 全璉準을 지원한다고 宣言하고 革命軍에 협력하라고 指示했다.

한편 日本은 公使 大島圭介가 朝鮮의 內政改革을 強要하고 淸日戰爭을 挑發하는데는 成功했으나 그것은 그들의 侵略戰爭을 達成하기 위하여 朝鮮政府로 하여금 盲目的으로 追從하도록 強要한 것이기 때문에 朝鮮國民 上下의 反撥을 招來하였고 모든 改革이 皮相의으로 되고 도리어 逆效果만을 거두게 된 것을 發見했다. 이에 朝鮮의 獨占的 支配를 위해 한 때 首相 代理職까지 보던 井上馨을 特命 專權公使로 보냈다.

그는 1894年 9月 27日에 부임하여 먼저 100余年間 執權해온 戚族勢力을 몰아내는에는 有用했으나 완고한 排外主義者인 大院君이 이제는 利用價値가 없다고 判斷하고 그를 除去하는 일에 着手하였다.

그리하여 大院君이 平安道 觀察使 閔丙奭에게 보낸 便紙에 있는 親淸文句를 꼬투리 삼아 10월 25日에 除去시켰다<sup>40)</sup>

그리고 東學軍을 섬멸해야겠다고 생각해서 高宗에게 11月 5日 <本使信은 물러감과 함께 貴國의 要請으로 出動시킨 東學黨 剿討兵의 撤收를 命하여 한 사람이라도 貴國을 위해 協力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本使信은 當然한 職務로서 貴國政府와 交渉하여 日本人이 東學黨에게 殺害當한다든지 혹은 利益의 侵害를 당할 경우가 있다면 貴國政府가 存在하는 한 談判을 展開할 터이요, 貴國政府의 힘이 이를 徵治할 수 없다면 부득이 我國은 兵力으로써 問罪하는 手段

39) 吳知泳, 車學史, p. 138-9.

40) 韓祐勅外, 韓國現代史, op. cit. p. 413.



을 取하되 추호도 고려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것이니 미리부터 諒解있기 바라는 바이다……그렇다고 萬一本使信에게 危害를 加하는 날에는 朝鮮의 亡國임을 記憶해두기 바란다><sup>41)</sup>고 脅迫하였다.

실로 이 때의 東學軍의 形勢는 全州占領 때와는 判異하여 죽기를 맹세하고 討倭救國을 외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썩어빠진 現政權을 타도하기 위하여 逐滅權貴의 깃발을 들고 서울로 달려오고 있었으므로 當時의 朝鮮政府는 그들 自身의 存續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日本의 勢力에 처참할 정도로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으므로 東學軍과 日本軍의 對決은 실로 運命의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南北接의 東學軍은 各各 10萬을 呼稱할 程度였으니 거의 20萬을 넘어선 大軍이었다<sup>42)</sup> 이들이 論山에 合勢한 것은 10月 中旬이었다.

全瑛準은 여기서 먼저 兩湖倡義領袖라는 名義로 忠淸監司인 朴齊純에게 다음과 같은 그의 衷情이 잘 나타난 激文을 띄어 보냈다.

日寇가 口實을 만들어 動兵하여 우리 임금님을 핍박하고 우리 國民을 어지럽게 함을 어찌 그대로 참을 수 있단 말이오. 옛날 壬辰亂 兵禍때에도 陵寢을 파헤치고 궁전과 宗廟를 불태우고 君親을 욕보이고 國民을 살육한 것은 臣民의 共憤으로千古에 잊을 수 없는 恨이었소. 草野의 匹夫牖童으로서도 오히려 울분과 근심이 그지없는데 하물며 閣下는 世祿忠勳으로서 더우기 平民 小夫의 鬨잡질이 아니겠소. 지금 朝庭의 大臣은 亡靈되고 구차하게 生命을 유지하려 하여 위로는 君父를 危脅하고 밑으로는 國民을 속여 倭夷와 連結하여 三南의 國民에게 怨恨을 사며 亡靈되게 親兵을 움직여 先王의 赤字를 害하려 하니 참으로 그 무슨 뜻이요. 지금 나의 하는 바는 極히 어려움을 알지마는 그러나 一片丹心 죽음을 覺悟하고 貫徹하려는 바요. 天下의 人臣으로 二心を 품는 者를 誅하여 버려서 先王朝 500년동안의 遺育의 恩惠에 갚으려는 것이니 閣下께서도 猛省하여 義로써 더불어 죽음을 覺悟한다면 千萬甚幸이겠소<sup>43)</sup>

이것은 東學亂이 歷史的으로 宿敵인 日本軍을 물리치고 賣國奴들을 뿌리뽑아 王朝를 지키는데 生命을 다하려는 것임을 간절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이미 東學軍은 7,8월에서부터 各處에서 日本軍을 습격했으며 日軍은 이를 방어할 수 있을 뿐 섬멸할 수는 없는 가운데 東學軍은 10월에 들어서 論山에서 公州로 北進할 氣勢를 취했다.

이에 井上馨은 9月 28日 本國에 1個大隊 5個中隊를 보내줄 것을 要請하여 本格的으로 東學軍을 섬멸할 작전을 짰다. 이 때 政府軍은 이미 여러 營兵의 軍隊가 日本軍에 의해서 武裝解除

41) 日本外交文書, 文書番號, 495의 附屬書 3 參照.

42) 韓語劄外, 韓國現代史, op. cit. p. 329.

43) ibid. p. 330.

를 當해, 남은 兵力은 몇 千名에 不遇했으며, 東學軍과 싸우는데 있어 事實上 日軍의 指揮下에 있으면서 同族인 東學軍을 亡靈되게 匪徒라 부르는 형편이었다.

이리하여 11월 15일부터 약 一週日간에 걸쳐 公州의 牛金峙에서 日軍과 血鬪를 감행했으나 우수한 裝備의 日軍에게 慘敗, 屍山血河를 이루고 魯城, 論山方面으로 後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全瑬準은 日本軍에게 예속된 官軍에게 다음의 告示文을 보내고 있다.

其實 朝鮮사람끼리 서로 싸우자는 바가 아니어늘 이와 같이 骨肉相殘하니 어찌 애달지 아니하리오…… 八方이 凶凶한데 편벽되게 서로 싸우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骨肉相殘이 아니겠소. 한편으로 생각하면 朝鮮사람끼리라도 道는 다르지만 斥倭와 斥華는 그 義가 一般이라 두어 字 글로 疑惑을 풀어 알게 하노니 각각 돌보고 忠君愛國의 마음이 있거든 곧 義理로 돌아와서 相繼하여 같이 斥倭斥華하여 朝鮮으로 倭國이 되지 않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大事를 이루게 하옵세라<sup>44)</sup>

실로 自主獨立國을 이루고 日帝의 植民地가 되지 않으려는 그의 悲願을 물리치고 같이 손을 잡고 싸워야 할 倭賊의 앞잡이로서 同族을 도리어 殺傷한 當時의 執權層의 賣國의인 行動은 이미 日本植民地에의 길로 自進해서 걸어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日本軍의 추격전은 濟州島를 포함한 全國에 걸쳐 행해졌으며 全瑬準이 1894년 12월 2일에 淳昌에서 체포된 후에도 이듬해 1895년 8월 3일 이후에 그 行方이 묘연해질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北接의 海月과 孫乘熙軍은 1894년 12월 24일에 忠州에서 解散하여 後日에 그 命脈을 유지하는 契機를 삼았다.

이리하여 <풍문으로 들던 말보다도 훨씬 뛰어나 보이는…… 과연 세상을 한번 놀라게 할만한 大偉人, 大英雄로 보였던><sup>45)</sup> 녹두장군 全瑬準은 41歲를 一期로 祖國을 구하려는 悲願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져갔다.

그리고 여기서 特記할 사실은 그에 대한 裁判은 사실상 日人들에 의해서 행해졌으므로 나라는 日本의 植民地化책가고 있었으며 그의 裁判宣告에 入會한 法務大臣은 일찌기 甲申政變 때 開化黨의 主役의 一人이었던 徐光範이었으니 이 어찌 같은 近代化的 旗手들의 자리가 서로 엇바뀐 民族의 悲哀이요 歷史의 아이러니라 말하지 않을 것인가!

## V

東學亂은 水雲이 創道해서 그가 殉教한 1860~64년까지를 第一期로 볼 수 있다. 이 時期는 千年만에 우리의 主体思想이 定着된 歷史的 時期인 것이며 特히 人乃天의 萬民平等思想이 創出

44) ibid. p. 338.

45) ibid. P. 351.

되어 政治的으로 深大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862년 겨울에 接主制度를 採擇, 점차 教勢가 組織化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第2期는 1864년부터 1893년의 서울에서의 教祖의 伸冤運動을 變 期間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는 勿論 李弼濟의 亂이 있긴 있었으나 教徒와 良民에 대한 官吏의 侵虐을 막기 위해서 教祖의 伸冤運動을 통해 東學에 대한 公認을 얻어내려는데 主力였고 教의 組織도 1884년에 六任制度를 採擇하여 보다 精密한 組織을 만들었던 比較的 消極的인 抵抗期였다.

그리고 1893년 3월 17일의 釋恩集會에서부터 1895년 東學의 行方이 表現해진 期間을 第三期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教祖의 伸冤運動뿐만 아니라 斥洋倭의 民族主義를 行動으로 옮긴 東學亂의 最絶頂期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時期에 東學亂이 失敗로 돌아간 原因은 무엇보다도 執權勢力이 反動化되어 外勢에 依存하려 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執權層이 反動化하게 된 때는 東學의 平等思想의 영향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은 東學의 平等思想이 封建的 身分思想에 對해서 革命的인 충격을 준 것은 분명하나 現實的으로는 社會心理를 兩分하는 作用을 했기 때문이다.

封建的 身分體制가 붕괴해가는 渦中에서 既存體制속에서 支配的 位置에 속하지 않는 階級들은 人乃天原理가 새로운 希望의 실마리가 되었으며 支配勢力은 점점 反動化해갔다.<sup>45)</sup>

그리고 이러한 反動化는 1894년 4월 30일에 淸에 대해서 援軍을 請한 亡國의 直接 原因이 된 決定的 失手를 犯한 事大主義的 心理狀態에 의해서 더욱 確實한 것이 되었다.

이에 對해 日本人學者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처럼 李氏朝鮮의 支配者의 各그룹이 韓國의 近代化를 방해하는 境遇, 그것이 表面上 保守的인 進步的인 間에 自國民衆의 밑바닥으로부터의 改革을 믿지 않고 外國勢力과 結託하는 限 그 意圖와는 반대로 買辦的이며 反動的인 것으로 轉化되어간다.<sup>47)</sup>

따라서 이러한 情勢속에서 祖國의 近代化, 自主性 確保를 위한 運動은 農民속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며<sup>48)</sup> 事實上 東學亂에 있어서도 <東學小, 而冤民多><sup>49)</sup>였음을 보면 어디까지나 農民이 主動的 役割을 한 것이며 全璋準은 이러한 農民運動에 對해서 起爆的인 役割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5) 黃生燮, 韓國農民意識의 歷史的發長, 曉岡崔文煥博士追念論文集, 曉岡崔文煥先生紀念事業推進委員會, 1977, p. 547.

47) 幼方直吉, 世界, op. cit. p. 215.

48) ibid. p. 215.

49) 東學亂記錄, 下, pp. 523-525.

한마디로 東學亂은 東學을 믿거나 안믿거나 간에 農民이 主軸이 된 反封建, 反外勢革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王朝를 무너뜨리려는 革命이 아니라는데에 東學亂의 限界가 있다고 하겠다. 이 때의 對日抗爭에 있어서는 그 民族主義的 性格은 蛇尾을 달 必要도 없이 明若觀火한 것으로 以後 韓國의 歷史의 方向을 決定짓는 것으로서 後日 天道敎가 主軸이 된 3·1運動에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東學軍이 내세운 弊政改革案 12條는 以後 日本이 強要했던 改革案보다도 民族史의 發展을 위해서는 더욱 더 적합한 것이었으나 執權層의 對外依存的 作態때문에 決코 實現될 機會가 없었다.

그리고 日本의 內政이 淸日戰爭方向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當時의 政府와 民間人의 國際政治에 對한 無知, 게다가 淸에 援軍을 要請한 拙劣한 處事는 李朝滅亡의 原因가운데 決코 적은 原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賢明한 外交家가 있었다면 東學軍의 愛國心을 內外的으로 善用하여 亡國의 悲運을 事전에 막을 수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끝으로 政治發展論의 角度에서 가장 重視되는 國民의 一體感의 造成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東學亂 當時의 韓國社會는 分明히 그러한 一體感의 造成에 畛의으로 失敗한 것을 알 수 있다.

原來가 우리 나라는 나라님이라고 하는 國民社會 (National Society)에 대해서는 一體感을 지니면서도 統治者들을 中心으로 한 統治國家에 대해서는 一體感 대신에 혐오와 저주로 一貫되어 온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은 東學亂과 같은 對外抗爭과 救國戰爭에서마저도 國民이 兩分되었다는 것은 실로 悲劇이며 여기에서 聯想되고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떠오르는 것은 일찌기 Sartre가 갈파했듯이 Nazi에 대한 Resistance 當時의 프랑스라고 하겠다. 그것은 <沈默의 共和國>으로서 참된 國民의 一體感이 確立된 民主主義體制였기 때문이다.

## —Summary—

## Tong-Hak Rebellion and Nationalism

*Jung Jin-o*

Yi dynasty had been ruined by the four causes of the sturdy Confucianism, the political seizure of powerful nepotism by the Min family, struggle for their domination over Korea between China and Japan, and peasants' uprising against government of the Yi dynasty and Japan in the late 19th century.

At that time Choi Je-Woo had established Tong-Hak (a group of national religion) in 1860, which was known as the originality of the Shamanism in Korea. The Tong-Hak had been spread their doctrine to a great many peasants in population in those days. And they rebelled against their corruptive government and Japan which had invaded Korea and defeated China in a war during 1894—5. But the Tong-Hak's army was destroyed by the modernized troops of Japan in those days.

The failure of the Tong-Hak army was due to the reactionary government of Yi dynasty mingled with Japan to maintain their political dominance regardless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In conclusion the author emphasizes that we must have insight into the failures because of the loss in their building of national identities in a war against a foreign power.